

“정부 개입에 지자체 투자효과 반감” 파주시, 평화도시조성 정책 추진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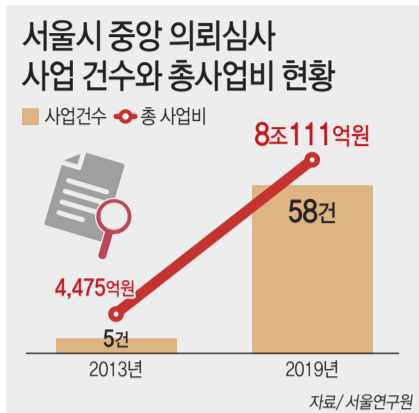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투자심사 개선 보고서 투자사업결정에 정부 역할 커져 자치·재정분권 시대적 흐름 역행 “현 정부 투자심사 제도 개선돼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개입 확대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투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연구원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 투자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는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자체가 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중앙 의뢰심사 대상 사업은 2013년 5건 지난해 58건으로 11.6배 늘었고 전체 사업비는 4475억원에서 8조111억원으로 약 18배 급증했다. 이는 15개 광역단체 중 2번째로 높은 순위다.



연구진은 중앙 의뢰심사 사업은 늘고 있는데 비해 국비 지원은 줄었다고 진단했다. 2019년 기준 중앙 의뢰심사사업의 국비 지원 비중은 7.7%에 그쳤고 정부 보조가 전혀 없는 경우도 50%나 됐다.

연구진은 중앙정부 위주 투자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책임성 약화 ▲재원 부담 주체와 심사 주체의 비정합성 ▲자치분권 강화 정책 퇴행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 훼손 ▲자치단체 투자사업 관리 역량 약화를 꼽았다.

박영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지방투자심사 제도는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을 수

행하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미만인 사업 대부분이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조사를 추진했음에도 그 결과가 실제 투자심사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확인한 결과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 20건 중 B/C가 1이 넘는 사업은 2건뿐이었다. 나머지는 B/C 1 미만 14건, 경제성 분석 미수행 4건이었다. 이중 19건이 투자심사를 통과해 타당성조사 수행 이후 투자심사까지 완료된 투자사업의 통과율은 95%에 달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투자사업은 단순히 시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잠재 성장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및 성장동력 수단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따라서 지방투자사업을 모두 의심의 대상으로 판단해 직접 통제하려는 현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연구용역 발주, 중장기 전략 구성

파주시는 ‘파주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을 위한 평화도시 조성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단계별 중장기 전략을 세워 시차원의 평화도시 조성 정책 추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는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예정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재)세종연구소가 용역을 수행한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평화협력 추진사업 분석 및 대체제제 단계별 사업추진 시나리오를 마련함으로써 남북변화에 대응하고 남북관계에서 지리적·상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



최종환 파주시장

는 파주시민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파주형 평화도시조성 기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울 것”이라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 평화도시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 등 관련 세부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평화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일산문화공원~일산호수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조감도

/고양시

서울시 “7호선 승객,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

자전거 평일 휴대 승차 시범운영 혼잡도 높은 출퇴근 시간대 제외

서울시는 금일부로 서울지하철 7호선 승객은 평일에도 자전거를 휴대하고 전동차를 탈 수 있게 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7호선에서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 승차’ 시범운영을 한다. 다만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는 제외된다.

자전거를 가지고 전철에 승차하는 7호선 승객은 거치대가 설치됐거나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 또는 뒤 칸을 이용하면 된다. 7호선에서만 시범 운영하므로 다른 지하철 노선으로 환승할 수는 없다.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전동칸 모습. /서울시

시간대를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오전 10시 이후에 타서 오후 4시 이전에 내려야 한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서는 안 되며,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

역사 내나 전동차 내에서 자전거를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타고 다니는 것

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여객운송약관에도 어긋난다.

다만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코레일도 경춘선(상봉~춘천)에서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시범사업을 하므로, 자전거 이용자는 7호선과 경춘선의 환승역인 상봉역을 거쳐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라이딩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1~8호선에는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자전거를 휴대하고 탈 수 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접이식 자전거는 호선이나 요일과 무관하게 가지고 탈 수 있다.

서울시는 중계, 학동, 반포, 이수, 장승배기, 대림역 등 7호선의 6개 주요 거점 역에 자전거 휴대 고객을 위한 경사로와 그림안내판을 설치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일산 녹지축 연결사업 추진

문화공원~호수공원 사이 보행교 설치

경기고양시는 일산문화공원과 호수공원을 잇는 ‘일산문화공원~일산호수공원 녹지축 연결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녹지축 연결사업지는 일산의 중심 녹지축인 정발산공원~일산문화공원~일산호수공원을 잇는 주요 거점이다.

그동안 일산호수공원은 왕복 6차로의 호수교가 가로막아 심리적·물리적 거리감으로 시민들이 걸어서 공원에 접근하기 불편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호수공원

한울광장 만국기 부근과 일산문화공원 사이에 너비 60m의 대형 보행교를 설치키로 했다.

이 보행교는 경사가 완만하면서 폭이 넓고, 녹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인허가 절차와 실시설계 용역 단계로 내년 7월 착공해 2022년 2월 준공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일산호수공원이 이번 녹지축 연결사업으로 시민 친화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서울시, ‘6·25전쟁 격전 상흔지’ 50곳 발굴

2022년까지 31곳 안내표지판 설치

서울시는 ‘6·25전쟁 격전 상흔지’ 50곳을 선정해 이 중 표지판이 없는 31곳에 2022년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수도권방위사령부와 협력해 1차로 군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시설이나 부지 소유자의 표지판 설치 동의를 구했다.

시는 31일 ‘한강방어선 노랑진 전투지’(사육신묘공원), ‘한강방어선 흑석

동 전투지’(효사정공원), ‘함준호 대령 전사지’(강북구 우이동 연경빌라) 3곳에 표지판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11월에 애국인사 구금지(구 성남호텔·현 예금보험공사) 포함 5곳, 내년에는 서울역 시가전지 등 18곳, 2022년에는 동작동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지 포함 5곳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서울관광재단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격전 상흔지와 연계된 안보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함준호대령 전사지(강북구 우이동 연경빌라). /서울시

또 202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가칭 ‘서울수복기념관’(동작구 동작동 동작주차근린공원 소재)을 거점으로 한 상설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1일 (화)

음력 : 7월 14일

수도권 날씨

31 ~ 24°C

해돋이 / 06:02 | 해질 / 19:01

도시	날씨	기온
연천	☁	22/30
동두천	☁	22/30
가평	☁	21/30
파주	☁	23/26
서울	☁	24/31
양평	☁	22/30
용인	☁	23/30
평택	☁	22/31
인천	☁	24/29
수원	☁	23/30
백령도	☁	22/25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